

김상진 열사 관련 기록물

1975년 5월 22일.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낭송되고 선구자가 불려지며
많은 사람들의 애도 속에 26세의 나이에
자신의 몸을 민주화의 제단에 바친
한 청년의 추도식이 거행되었다.

홍계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대학시절의 김상진 열사

서시와 선구자를 좋아했던 김상진 열사

1975년 2월 12일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 신임국민투표를 실시하여 73.1%에 이르는 찬성을 얻은 후, 2월 15일에 민청학련 관련자 일부와 인혁당 관련자를 제외한 긴급조치 1, 4호 관련자에 대한 석방조치를 취하였다. 개학과 함께 정부 당국이 석방자들의 복교, 복직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학생운동은 격렬한 싸움을 전개하게 된다. 3월부터 서울시내 각 대학에서 복교, 복직 문제를 비롯하여 언론탄압, 민주회복 등의 문제로 교내 및 가두시위가 발생하였다. 4월 8일 고대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자, 박정희 정권은 학생시위를 무력으로 막기 위해 긴급조치 7호를 발동하여 고려대에 휴업령을 내리면서 학교 안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바로 이날 대한민국 법정에서는 인혁당 관계자 8명에 대한 사형이 언도되었고, 사형이 언도된 지 불과 20시간 후인 4월 9일 이른 아침, 인혁당 관계자 8명의 사형이 신속하게 집행되었다. 국제법학자협회는 사형이

집행되었던 1975년 4월 9일을 '사법 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하였다.

인혁당 사건 관련자에 대한 사법살인이 자행된 다음 날인 4월 10일, 당시 서울대 농대 축산과 4학년이던 김상진은 유신 정권의 부도덕성과 잔학상을 보며 집에서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장>을 쓴다. 죽음을 준비하며 유서를 쓴 것이다.

“위대한 지도자의 진정한 용기는 영광의 퇴진을 위한 숭고한 결단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죽음으로써 바라옵나니, 이 조국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에서 바라옵나니, 국민의 양심으로써 진실로 진실로 었드려 바라옵나니,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이 가지 않도록, 더 이상의 혼란이 오지 않도록 숭고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영원한 민주주의를 꽃피우며 갈망하는 우리 민족의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떠한

고 김 상진군의 유서(양심선언)

더 이상 우리는 어떻게 참을 수 있으며 더 이상 우리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 어두움이 짙게 덮힌 저 사회의 음울한 공기를 헤치고 죽음의 전령사가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 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다.

무엇을 망설이고 무엇을 생각할 여유가 있던 말년기대학은 휴강의 노예가 되고, 교수들은 정부의 대변자가 되어가고, 어미닭을 잃은 병아리마냥 우리들은 반응없는 울부짖음만 보하고 있다. 우리의 주장이 결코 그릇됨이 아닐진대, 우리의 주장이 결코 비양심이 아닐진대 우리는 어떻게 더 이상 자존을 짓밟혀, 불명예스런 삶을 계속할 것인가, 우리를 대변한 동지들은 차가운 세면바닥위에 신음하고 있고, 무고한 백성은 행장의 이슬로 사라져 가고 있다. 민주주의란 나무는 비를 먹고 삼아간다고 한다. 물이라, 동지여!

우리의 슬고한 피를 흘려서 이 땅에 영원한 민주주의의 부른 일사리가 번성하도록 할 용기를 그대들은 주저하고 있는가! 들으라! 우리는 유신 헌법의 잔인한 폭력성을, 합법을 가장한 유신헌법의 모든 부조리와 악을 고발한다. 우리는 유신헌법의 비민주적 허위성을 고발한다. 우리는 유신헌법의 자기중심적 이기성을 고발한다.

학우여!

아는가! 민주주의는 지식의 산물이 아니라 투쟁의 결과라는 것을. 금일 우리는 어세를 통탄하기 전에 내일을 체념하기 전에 치밀한 이성과 신념으로 이 처참한 일당독재의 야성을 향해 불퇴전의 결의로 진격하자. 민족사의 재난은 밝아오고 있다. 그 누가 이 날의 공포와 혼란에 노략질 당하길 바라겠는가, 우리 대한 학도는 민족과 역사 앞에 분연히 선언한다. 이 정권이 끝날때까지 후퇴치 못하고 이 민족을 끝까지 못살게 군다면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뜨겁게 외치는 이 땅의 모든 시민의 준열한 피의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역사는 이러한 사태를 원치 않으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가 무너지고 또 무너지더라도 무릎 꿇고 사느니 차라리 서서 죽을 것임을 재천명한다. 탄압과 기만의 검은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라. 우리는 이제 자유와 평등의 민주사회를 향한 결단의 것만을 내걸어 일체의 정치적 자유를 질식시키는 공포의 병영국가가 도래했음을 민족과 역사 앞에 고발코자 한다. 이것이 민족과 역사를 위하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랑스런 조국의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길이며, 이것이 영원한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길이라면 이 보잘것 없는 생명, 바치기에 아까움이 없노라. (양심이 가리키는 방향이고 내 양심이 지향하는 길이있습니다. 나의 앞으로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은 조금도 중요하지 말고 완전한 이성을 되찾아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갖다가 명심 상부하게.....)

저 지하에선 내 영혼에 눈이 뜨여 만주스런 웃음 속에 여러분의 진격을 지켜보리라. 그 위대한 승리가 도래하는 날!

나!

소리없는 뜨거운 갈채를 만천하에 울리게 보낼 것이다.

1975. 4. 11. 9 시

김 상 진

(서울 농대 축산학과 4년)

편집자주 : 광호 친 부분은 바람으로 인하여 녹음상태가 청취불가능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 27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난 김상진군은 특히 <선구자>라는 노래와 운동주의 序詩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여기 운동주의 <序詩>를 소개합니다.

죽는날 까지 하늘을 우러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일생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 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75년 4월 11일 김상진 열사는 서울대 농대 비상학생총회에서 양심 선언문을 낭독한 후 자결한다.

압력에도 끝없는 투쟁을 계속하여 싸워 이겨나갈 것이라
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4월 11일 서울 농대생들은 대강당 앞 잔디밭에 모여
비상학생총회를 개최하였다. 오전 11시 20분경 김상진
이 연사로 등장하였다.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양심 선
언문을 읽기 시작했다.

“더 이상 우리는 어떻게 참을 수 있으며 더 이상 우리는
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 어두움이 짙

게 덮힌 저 사회의 음울한 공기를 헤치고 죽음의 전령사
가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
다.....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후퇴치 못하고 이 민족을 끝까
지 못살게 군다면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뜨겁게 외치는
이 땅의 모든 시민의 준열한 피의 심판을 면치 못하리
라. 역사는 이러한 사태를 원치 않으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가 무너지고 또 무너지더라도 무릎 꿇고 사느니 차
라리 서서 죽을 것임을 재천명한다. 탄압과 기만의 검은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라. 우리는 이제 자유와 평등의

자유를 위해 죽음을 택했다

金相振군의 自決로 大學街에 큰 충격



◎ 심상진 씨의 사진 김相振氏

自由와 민주주의 투쟁의 產物

良心선언과 遺書 통해 恐怖정치 규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요람이다. 그러나 이 요람에서 자라온 자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 요람은 자라지 않는 나무와 같다. 김상진 군은 이 사실을 깨달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였다.

김상진 군은 1975년 4월 15일, 서울대학교에서 학생회장을 맡고 있을 때, 박정희 정권의 독재와 부패를 규탄하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문은 학생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김상진 군은 이 선언문을 발표하는 데 있어 많은 고민을 겪었다. 그러나 그는 "자유를 위해 죽음을 택했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김상진 군의 죽음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김상진 군의 죽음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의 죽음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게 되었다. 김상진 군의 죽음은 민주주의 투쟁의 산물이다. 그의 죽음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산물이다.

민주사회를 향한 결단의 깃발을 내걸어 일체의 정치적 자유를 질식시키는 공포의 병영국가가 도래했음을 민족과 역사 앞에 고발코자 한다. 이것이 민족과 역사를 위하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스런 조국의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길이며, 이것이 영원한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길이라면 이 보잘 것 없는 생명, 바치기에 아까움이 없노라."

여기까지 읽은 후 품 안에서 길이 20cm 가량의 등산용 칼을 꺼내 오른 손에 들고 왼쪽 하복부를 찌른 후 온 힘을 다해 비스듬히 위로 그어 올렸다. 선혈을 내뿜는 그를 동료들이 부축하여 택시에 태울 때까지 그는 '애국가를 불러 달라'고 부탁을 했고, 동료들이 불러주는 애국가를 들으며 혼수상태에 빠졌다. 수원도립병원에 옮겨진 그는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출혈이 너무 심해, 12일 서울대부속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앰블런스 차 안에서 끝내 절명하고 말았다. 그 날, 그의 시신은 벽제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가 되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갔다.

김상진 열사 사후에 박정희 정권은 유신체제 및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모든 비판을 봉쇄하고자, 5월 13일 긴급조치 9호를 선포한다. 서울대생들은 5월 22일에 김상진 열사의 장례식 및 추도식을 거행한 후, 대규모의 시위를 전개한다. 이것이 긴급조치 9호 이후 첫 시위인 서울대 5·22 시위로 4,000여명의 학생들이 모이고, 300여명이 연행되었으며 56명이 구속된 커다란 사건이었다. 이렇듯 김상진 열사의 죽음은 박정희 유신 정권의 엄혹한 통치 속에서 민주화를 향한 뜨거운 열기를 솟아오르게 하는 디딤돌이 되었다.

김상진 열사의 육성 녹음을 기증해 주신 정혁기 선생님, 김상진 열사의 사진과 <양심선언문>,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장> 등 미국에서부터 간직해 오던 소중한 사료를 본 사료관에 기증해 주신 정무형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김상진 열사의 죽음을 알리는 기사가 실린 75년 4월 15일자 신민당보 <민주전선> "자유를 위해 죽음을 택했다"

여러분을 **희망세상**으로 초대합니다.

